

스트리트 스타일에 나타난 재즈(jazz)의 영향

- 소재와 색상을 중심으로 -

정미진* · 정홍숙

승의여자대학 패션디자인전공 강사* ·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하위문화에 있어서 대중음악은 젊은이들의 결속력을 강화해주고 그들만의 개성을 표출해주는 언어라 할 수 있다. 특히 1920년대 이후 급격한 대중매체 보급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한 재즈는 1940년대까지 생활 문화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는데 그 중 두드러진 특징으로 자리매김 한 부분은 하위문화 패션이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스트리트 스타일들의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보장해주는 것은 의상의 실루엣도 있지만 더욱 확연히 해주는 부분은 장식적인 부분, 즉 소재와 색상은 디테일하게 그 고유 장르를 설명해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재즈의 발생 및 역사, 대중문화에 있어서 재즈의 영향을 규명하고 재즈 음악이 반영된 남성 패션 직물 문양의 경향을 각 시대별로 고찰하여 패션에 있어서의 직물 문양의 비중을 재조명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1950년대 록큰롤의 출현까지는 가장 활발했던 재즈의 전성기 1920년대부터 1940년까지의 재즈 룩의 소재와 문양을 살펴보고 또한 1990년대 재현된 재즈 룩의 직물 문양을 남성복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재즈는 1917년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된 아프리카 전통의 흑인 음악과 유럽의 전통이 결합되어 나타난 음악으로 그 기원은 흑인 노예들이 노예선에 팔려가면서 슬프게 부른 노동요에서 기원했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재즈는 그 뮤지션들의 옷차림이 점차 무대 의상으로 머물지 않고 애호가들과 일반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패션의 흐름에도 반영되었다.

1920년대 재즈 수트의 색상은 회색과 브라운 계열이 주류를 이루었고 넥타이의 색상도 붉은 보우

타이가 많이 애용되었다. 직물의 소재는 조직이 눈에 띄지 않는 코오듀로이 플레넬, 트워드 등이 쓰였다.

1930년대 드레스 수트의 경우 주로 아이보리와 검정색이 주류를 이루었고 광택이 있는 직물을 재킷과 칼라와 같은 부분 혹은 전체에도 사용했다. 후반기에 갈수록 셔츠와 재킷에 편 스트라이프 패턴이 사용되기 시작되었다. 또한 색상이 난색 계열로 밝아지기 시작했다.

1940년대의 수트의 경우 스트라이프 패턴이 다양화 되기 시작했고 셔츠에도 스트라이프 패턴이 쓰이기도 했다. 소재로는 체크와 헤링본 조직이 약간씩 보이는 직물도 사용되었다. 색상은 파스텔조, 난색의 화사한 색상이 사용되었다. 넥타이는 길이가 짧고 색상과 패턴이 화려한 것으로 착용되었다.

1990년대 출현한 재즈 룩은 과거 소재와는 달리 벨벳과 공단 등 광택 있는 소재와 셔츠에만 TM인 것이 아니라 수트 전체에도 쓰였다. 또한 각 아이템 별로 각기 다른 소재를 메치시키기도 하였다. 패턴의 경우 스트라이프가 매우 다양한 굵기와 간격으로 사용되었고 색상은 어두운 색상부터 밝은 색상까지 매우 다양하나 부분적인 액센트 카라로는 난색, 파스텔 계열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문화의 하나인 패션은 스트리트 스타일이라는 고유의 장르를 확보하게 되었고 이러한 장르의 형성 배경에는 대중음악이라는 분야가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재즈가 시대별로 변화함에 따라 재즈 룩도 바뀌게 되었는데 실루엣뿐만 아니라 소재와 색상에 있어서도 변화가 지속되었다. 이로써 패션에 있어서의 직물의 비중과 그 중요성이 재인식되었다.